



"어이말이 두부 앓듯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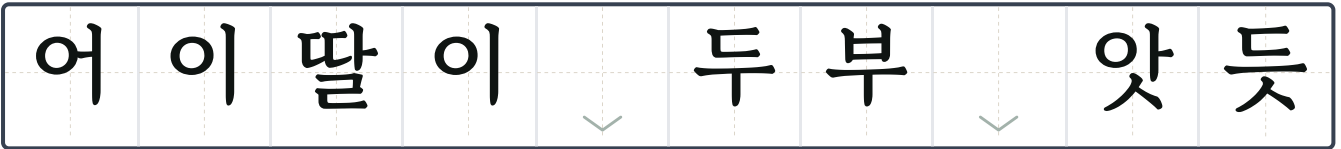
뜻: 엄마와 딸이 함께 두부를 자르듯이, 두 사람 이상이 마음과 힘을 합쳐 어떤 일을 아주 쉽게 착착 해내는 것이예요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협동 · 조화 · 효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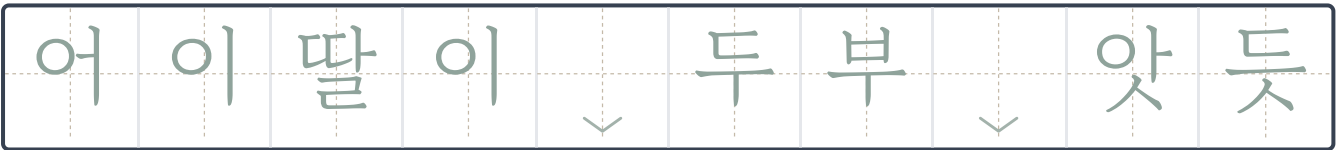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옆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ㅇㅇㅌㅇ] [ㄷㅅ] [ㅇㄷ]

웹에서 보기

